

2025년 3학년 1학기 1차 지필시험 정답표

2일차 - (4월 29일)

윤리와 사상			심화영어 I			화법과 작문			언어와 매체		
문항	배점	정답	문항	배점	정답	문항	배점	정답	문항	배점	정답
1	2.5	1	1	3	1	1	3	2	1	2	1
2	1.8	2	2	3	5	2	3	1	2	2.5	2
3	2.5	5	3	3	4	3	3	5	3	2.5	2
4	1.8	5	4	3	2	4	3	4	4	2	3
5	1.8	4	5	3	3	5	3	3	5	2.5	3
6	2.5	5	6	4	3	6	3	5	6	2.5	5
7	1.8	2	7	5	2	7	3	4	7	2	3
8	2.4	1	8	4	1	8	3	3	8	2	3
9	2.4	2	9	4	5	9	4	2	9	1.5	4
10	1.7	3	10	4	4	10	3	3	10	1.5	1
11	1.9	1	11	4	2	11	3	5	11	2.5	5
12	1.7	2	12	5	3	12	3	3	12	2	2
13	2.4	4	13	3	3	13	4	5	13	1.5	5
14	1.9	3	14	3	4	14	3	4	14	1.5	1
15	1.7	1	15	3	3	15	3	2	15	2.5	4
16	1.9	5	16	5	5	16	4	5	16	1.5	4
17	2.3	1	17	4	5	17	3	4	17	2.5	1
18	1.9	4	18	5	4	18	3	1	18	2.5	3
19	2	3	19	4	5	19	3	2	19	1.5	5
20	2.3	5	20	5	4	20	3	5	20	2	5
21	2.3	4	21	4	4	21	3	5	21	2	3
22	2.1	3	22	4	2	22	3	4	22	2.5	1
23	1.6	5	23	5	1	23	3	1	23	2.5	1
24	2.1	5	24	5	3	24	3	2	24	1.5	1
25	1.6	3	25	5	1	25	3	5	25	2	4
26	2.2	3				26	3	1	26	2	2
27	1.6	2				27	4	2	27	2.5	3
28	2.1	3							28	2	1
29	1.5	4							29	2	3
30	2.1	2							30	2	5
31	1.5	4							31	2	5
32	2.2	1							32	2	4
33	1.5	2							33	2.5	3
34	2.2	1							34	1.5	2
35	2.2	4									

윤리와 사상 (서술)형 답안 및 채점 기준

번호	예시(모범) 답안	배 점
1	키르케고르가 주장하는 실존의 3단계에는 탐미적(감각적 단계), 윤리적 단계, 종교적 단계가 있다.	12
2	스피노자가 주장하는 자유의지는 필연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.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자유는 이성으로 필연성을 인식하여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.	10
3	아리스토텔레스는 철수가 나쁜 행동을 한 이유는 앎이 없기 때문이다. 혹은 앎은 있지만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철수가 나쁜 행동을 한 것이다.	8

화법과 작문 (서술)형 답안 및 채점 기준

번호	예시(모범) 답안	배 점
1	<p>㉗의 경우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화면에 주목할 것을 표현하기 위한 비언어적 표현이므로 대치에 해당한다.</p> <p>㉘의 경우 언어적 메시지와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비언어적 표현인 '음흉한 표정으로' 나타내고 있으므로 모순에 해당한다.</p> <p>㉙의 경우 '두 번째'라는 언어적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손가락을 두 개 폈으니 언어적 메시지의 강조에 해당한다.</p>	9
2	<p>마지막 문장의 경우 글의 주제맥락과 맞지 않는 문장이다. 글의 통일성을 위해 해당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.</p>	6

언어와 매체 (서술)형 답안 및 채점 기준

번호	예시(모범) 답안	배 점
1	<p>[조건1] ‘신라’는 ㉠에 의해 [실라]로 발음된다. [2점]</p> <p>[조건1] 왜냐하면 뒤 음절 초성이 ‘ㄹ’일 때 앞 음절의 종성에는 ‘ㄹ’만 올 수 있다는 음절 배열 제약(㉠)이 있기 때문이다. [2점]</p> <p>[조건1] 따라서 ㉠을 지키기 위해 역행적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. [2점]</p> <p>[조건2] ‘없는’는 ㉡과 ㉢에 의해 [업는]으로 발음된다. [각 1점]</p> <p>[조건2] 왜냐하면 종성에서 한 개의 자음만을 발음할 수 있다는 음절 구조 제약(㉡)을 지키기 위해 [업는]으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. [2점]</p> <p>[조건2] [업는]은 뒤 음절의 초성이 비음일 때 앞 음절의 종성에 장애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배열 제약(㉢)을 지키기 위해 역행적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. [2점]</p>	12
2	<p>[조건1] (가)를 통해 ㉣을 설명할 수 있다. [1점]</p> <p>[조건2] 왜냐하면 ㉣의 동일한 형태 ‘와’는 ‘누나와’에서는 접속 조사, ‘엄마와’에서는 부사격 조사, ㉣의 동일한 형태 ‘에’는 ‘시골에’에서는 부사격 조사, ‘떡에’, ‘전에’에서는 접속 조사로 쓰였기 때문이다. [3점]</p> <p>[조건1] (나)를 통해 ㉣을 설명할 수 있다. [1점]</p> <p>[조건2] 왜냐하면 ㉣의 ‘으로의’는 부사격 조사 ‘으로’와 관형격 조사 ‘의’가 결합한 형태이며, ㉣의 ‘에서만’과 ‘에서도’는 부사격 조사 ‘에서’와 격 조사 ‘만큼’, 보조사 ‘도’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. [3점]</p> <p>[조건1] (다)를 통해 ㉣을 설명할 수 있다. [1점]</p> <p>[조건2] 왜냐하면 ㉣의 동일한 형태 ‘에서’가 ‘광주에서’는 주격 조사로, ‘광주인성고에서’는 부사격 조사로, ㉣의 동일한 형태 ‘이’가 ‘얼음이’, ‘그것이’에서는 주격 조사로 ‘물이’, ‘사실이’에서는 보격 조사로 쓰였기 때문이다. [3점]</p>	12
3	<p>[조건1] ‘이형태’란 동일한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는 형태를 말한다. [2점]</p> <p>[조건2] ‘음운론적 이형태’에 해당한다. 왜냐하면 앞말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‘-았-’ [2점], 앞말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는 ‘-었-’과 같이 서로 다른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의 형태가 출현하기 때문이다. [2점]</p>	6